

「正俗諺解」에 나타난 어휘 변천 연구

김 태 곤*

차 례

- I. 서론
- II. 고유어의 한자어화
- III. 어형이 변한 어휘
- IV. 어형 소멸로 인한 어형 교체
- V. 의미가 변화하여 다른 어휘가 대체되어 쓰이는 것
- VI. 일사본에서 주로 쓰는 어휘로 바뀜
- VII. 결론

I. 서론

「正俗諺解」는 원나라 王逸菴이 쓴 「正俗篇」을 金安國이 언해하여 1518년(中宗 13년)에 「呂氏鄉約諺解」와 함께 간행한 李源周 교수 소장본인 「正俗諺解」가 있고, 1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奎章閣本과 18세기말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一簣文庫本이 현존한다.¹⁾

이 중 17세기 후반의 규장각본은 이원주 교수본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해당 시기에 맞는 국어 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홍윤표 교수, 正俗諺解 解題(정속언해 영인본, 홍문각, 1984)

국어 연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일사문고본은 이원주 교수본과 상관없이 언해된 것으로 두 책 사이에는 문장구조와 표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사문고본은 앞선 간행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해되어 18세기말 국어 상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말에 간행된 것으로 믿어지는 「正俗諺解」 일사문고본(이하, '일사본'이라 하고, 용례 인용에서는 '일'이라고만 표시한다.)은 이전에 간행된 문헌과 비교하면 많은 어휘 변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 이를 16세기 초에 간행된 「正俗諺解」 이원주 교수본(이하, '이원주본'이라 하고, 용례 인용에서는 '이'라고만 표시한다.)과 비교하여 18세기말 국어 어휘 변천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유어의 한자어화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앞서 간행된 문헌에 비해 뒤에 간행된 문헌에서 고유어에서 한자어로 바뀐 용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正俗諺解」도 이원주본에서 한글로 풀어썼던 것에 비하여 일사본에서는 간결한 한자어로 언해하여 많이 썼다. 그러나 그 한자어의 표기는 漢字로 하지 않았다.

다음에 용례를 먼저 이원주본의 것을 제시하고, 뒤에 일사본의 것을 제시하여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 안의 한자는 필자가 써넣었다.

조디호모로(이25b) : 간약(簡約)ㅎ기로써(일43a)

하늘과 짜로(이5b) : 건곤(乾坤)으로써(일8b)

아숨(이10b) : 골육(骨肉)(일18a)

허물(이2a) : 과실(過失)(일3a)

- 아숨(이9b) : 권당(眷黨)(일15b)
웃듬도이(이16a) : 괴강(紀綱)을(일26b)
주으리디(이8a) : 괴한(飢寒) 하기에(일13a)
너름지스리와(이21b) : 농인(農人)과(일35b)
너름지술 연장(이23b) : 농장기(農仗器)(일39a)
받님자(이23b) : 던주(田主)(일39b)
하다가(이2b) : 만일(萬一)(일3b)
又업슨(이17a) : 망극(罔極)훈(일28b)
이럼바툼(이24a) : 못(苗)밭들(일40a)
스승(이20a) : 무당(巫堂)(일33b)
가슴떨어나 귀커나(이7b) : 부귀(富貴)하며(일12a)
어버이(이1b) : 부모(父母)(일2a)
어버이논(이3a) : 부모(父母)논(일5a)
어버신(이6a) : 부모(父母)논(일9a)
어버일(이17a) : 부모(父母)를(일28b)
어버쇠(이22a) : 부모(父母)의(일36b)
남진겨집비 이신(이5b) : 부비(夫婦) 이신(일8b)
남진 겨집비(이6a) : 부비(夫婦)(일9b)
가슴며닌(이25b) : 부자(富者)논(일42b)
어버이며 형들히(이8a) : 부형(父兄)엿(일13a)
굴히여(이9b) : 분별(分別) 하야(일15b)
해여(이17b) : 분별(分別) 하야(일29a)
가난하니논(이25b) : 빈자(貧者)논(일42b)
상사롬(이25a) : 백성(百姓)(일42a)
세 히(이1b) : 삼년(三年)(일2a)
이 상해 사롬(이22a) : 이거시 범(凡) 사롬의(일37a)
그위종하며(이13a) : 송스(訟事)에 널며(일21b)
손발롤(이4b) : 슈족(手足)을(일6b)

아름더런(이16a) : 스가(私家)논(일26b)

드사흐느니(이17a) : 스모(思慕)흐느니(일28b)

사를 이를(이22a) : 생업(生業)을(일36b)

조상의 도훈 일(이30a) : (조상의) 음덕(蔭德)(일50b)

조상의 도훈 일(이30a) : (조상의) 음덕(蔭德)(일51a)

옷(이2a) : 의복(衣服)(일2b)

오술(이25a) : 의복(衣服)을(일41b)

아스므런(이11a) : 인친(姻親)은(일18b)

공장와치와(이21b) : 장인(匠人)과(일35b)

공장이(이21b) : 장인(匠人)이(일35b)

이바다도(이20b) : 제스(祭祀)를(일34a)

하나빌(이9b) : 조상(祖上)을(일15b)

하나비여(이10a) : 조상(祖上)이야(일16a)

어버시(이18b) : 조상(祖上)(일31a)

하나버시(이18b) : 조상(祖上)과(일31a)

하나버시(이19a) : 조상(祖上)(일32a)

덕당 몰즈시글(이9b) : 종가(宗家)를(일15b)

몰즈식(이9b) : 종가(宗家)(일15b)

덕당 몰즈식(이10a) : 종가(宗家)(일17a)

아비녁(이10b) : 종족(宗族)(일18a)

진짓(이3b) : 진정(眞正)이(일5b)

즈셔기며 아숨(이8a) : 즈데(子弟)를(일13a)

쥐주느니(이16a) : 즈뢰(資賴)케 흐느니(일26b)

고마(이10a) : 첩(妾)(일16b)

겨지비녁(이11a) : 처편(妻便)(일18a)

어미녁(이10b) : 친인(親姻)(일18a)

아숨(이11a) : 친(親戚)(일18a)

하늘짜(이2b) : 텃디(天地)(일3b)

- (어떡)넉(이11a) : (엄의)편(便)(일18b)
가속면희예(이27b) : 풍년(豐年)(일46b)
어리고 사오나온 놈도(이7b) : 하품(下品)으로 어린자도(일12a)
(아버이) 빗내요미(이8a) : (부모를) 현달(顯達)케 흠이(일12b)
어려운 제(이27b) : 환난(患難)애(일47a)
어려운 저긔(이3b) : 환난(患難)의논(일5b)
어려운 제(이29b) : 환난(患難)의(일50a)
갈줄울(이16a) : 환도(環刀)을(일26b)
사오나온희(이21b) : 흉년(凶年)(일36a)
글ㅎ기(이21b) : 학업(學業)(일35b)

이처럼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체한 현상은 근대국어에서 심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1587년에 간행된 선조판 「小學諺解」와 1692년에 간행된 「小學諺解」의 비교 연구에서도 후자인 17세기 후기판 「小學諺解」에서 한자어로 바뀐 용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²⁾ 1481년에 간행된 「三綱行實圖」, 1617년에 간행된 「東國三綱行實圖」, 1797년에 간행된 「五倫行實圖」의 같은 내용을 비교해 보면 「五倫行實圖」에서 한자어의 침식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³⁾

이상과 같이 이원주본에서 고유어로 쓰였던 어휘가 일사본에서 한자어로 바뀌어 쓰인 것과는 달리 일사본에서 다음 용례와 같이 고유어로 쓰인 것도 있어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사본에서 고유어를 골라 쓴 것은 이러한 고유어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으며 원문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단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용례의 이원주본의 () 안 한자는 필자가 써넣었다.

2) 김주원(2001), “소학언해 연구”, 국어학, 37, 국어학회, pp.26-27.

3) 남기탁(1979), “東國新續三綱行實의 국어학적 연구 - 東國三綱行實과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4.

공세(貢稅)(이23b) : 구실(일39a)
냥반(兩班)니(이21b) : 선비논(일35b)
냥반(兩班)과(이21b) : 선비와(일35b)
데언(堤堰)(이23b) : 두던(일39a)
대신(代身)(이15b) : 갑시(일26a)
소임(所任)물(이16a) : 구실로써(일26b)
(몸미) 정(正)티(이5b) : (몸이) 바르디(일8b)
즈뢰(資賴)호고(이15a) : 힘납고(일25b)
(벌들) 즈뢰(資賴)호여(이14a) : (벗을) 힘니버써(일23b)
즈뢰(資賴)홀 거시라(이13b) : 힘니버 호리니(일22a)
즈석(子息)글(이7b) : 아들을(일12a)
츄던(寢殿)(이25a) : 자논 집(일41b)
(부모를) 효양(孝養)호미(이22a) : (부모를) 치미(일37a)

Ⅲ. 어형이 변한 어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의 일부가 변화한 것들이다.

(1) 가롤(이9b) : 가력(일15a)

네 가롤로 滅을 뵈나(四派示滅)(楞 9:120)

므리 물리 이서 가롤 모도똥호니(如水有宗以會其支派)(法華 1:13)

물가래 패 : 派(類合 下59)

두 집 사이에 세 가래 石橋 | 이시니(兩閣中間有三叉石橋)(朴蔭 上60)

물 가력(水派)(同文 上8)

'가탈'은 '갈래' (派)의 뜻으로 중세국어(15, 16세기)에서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그 후 어형이 변화하여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類合」(1576)에서 '가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同文類解」(1748)에서 '가랏'로 표기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의 문헌인 「正俗諺解」 일사본에서도 '가랏'로 나타났다.

(2) 굴항(이29b) : 굴형(일49b)

기픈 굴형에 싸디여(南明 下60)

굴형에 멧귀여 주구리라 호매(欲填溝壑)(杜初 7:3)

굴형 학 : 壑(訓蒙 上3)

이 단어가 위의 다른 문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도 '굴형'이었는데 이원주본에서 '굴항'으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이 말은 근대국어에서도 '굴형'으로 표기되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3) 그우일(이23a) : 구실(일38b)

그우일 하물(이23a) : 구실 만하물(일38b)

그우일 근심호미(이23a) : 구실 근심이(일38b)

귀시리(이23a) : 구실이(일38b)

漸漸 즈라 出身하며 그우실흙 곧하니(漸漸成長出身入仕)(圓 上-一-111)

그우시롤 벗리고(去官)(內 1:72)

네 百姓은 그위실하리와 너름지스리와(四民士農)(楞 3:88)

靜이 아리 사오나온 그위실을 因하야(靜往因薄宦)(永嘉 序13)

'公務, 租稅, 賦役'의 뜻을 가진 이 말은 위의 다른 문헌의 용례처럼 15세기에 '그우실' 또는 '그위실'로 표기되어 쓰였는데, 「正俗諺解」 이원주

본에서는 ‘그우일’로 세 예가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고, ‘귀실’로도 한 예가 나타난다. ‘구실’은 15세기말부터 일반적으로 쓰였고, 그 후로 계속 이어졌다.” 이 어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변천 과정이 ‘그우실>귀실>구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4) 그윗 공세물(이23b) : 구윗 구실을(일39a)

그위에 決하라 가려 하더니(釋 6:24)

즉자히 그위를 더디고 도라운대(即日棄官歸)(三綱 孝21)

이 구윗 威嚴에 逼迫하에로라(迫此公家威)(杜初 15:5)

다스림을 可히 구위에 옮기느니(治可移於官)(小學 2:70)

구의예 오미 쉰 나리 몸호디(到官未五十日)(杜初 25:36)

구의로 只술 집 문마다 벽매 분 칠하고(官司排門粉壁)(鰓老 上47)

구의 관 : 官(同文 上50)

‘官衙’의 뜻을 가진 이 말이 이원주본에서는 ‘그위’로, 일사본에서는 ‘구이’로 쓰였는데, 위의 다른 문헌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이 ‘그위 > 구위 > 구의’의 변천과정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5) 녀교미(이9b) : 녀기면(일15a) * 녀기면(이16a) : 녀기면(일26b)

녀교미라(이9b) : 녀기미라(일15a)

내 이를 爲하야 어엿비 너겨(訓諺)

飲食만 하는 사람을 곧 사람이 賤히 너기느니(飲食之人則人賤之)

矣)(小學 3:27)

착히 녀기다(善之)(同文 上24)

어엿비 녀기거시놀(三綱 烈7)

막숨 도히 녀기논 형데(好哥哥弟兄們)(鰓朴 上71)

막을 사룸이 영화로이 녀기거늘(鄉人榮之)(小學 5:30)

아는 사룸이 괴트기 녀기더라(識者奇之)(新續 忠1:50)

현대국어 '여기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어형이 '녀기다'로 쓰였고, 근대국어에서는 주로 '녀기다'로 쓰였다. 물론 위의 다른 문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녀기다'가 근대국어에서도 쓰이고, '녀기다'가 중세국어에서도 쓰인 경우도 있다.

「正俗諺解」이원주본과 일사본도 각각 '녀기다'와 '녀기다'가 쓰였으나,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원주본에서 '녀기다'가 나타나기도 한다.

(6) 님구미(이24b) : 님금이(일41b)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여러 문헌에서 '님군'과 '님금'이 혼용되었으나, '님금'이 正字였는데 이원주본에서는 '님금'으로 표기되었다.

(7) 느즈기(이25a) : ㄴ계(일41b)

느즈기 辭讓하야 物을 恭敬홀 씨오(卑遜敬物)(永嘉 上48)

미해 구루믄 느즈기 물로 건너가고(野雲低度水)杜初 14:12

괴운을 즈즈기 하며 소리톨 화열히 하야(下氣怡聲)(小學 2:3)

ㄴ고 저므니란 등수롤 더으느니라(卑幼加等)(警民 7)(改刊本)

ㄴ다(低阿)(同文 上7)

중세국어에서는 부사 ‘노즈기’가 쓰였는데, 이 말이 근대국어에서는 사라진 것에 맞추어 일사본에서는 ‘노게’로 나타났다.

(8) 정승 도외오(이29b) : 정승이 되며(일50b)

상재 ㄷ외에 하라(釋 6:1)

종 ㄷ외어지라 하노다(乞爲奴)(杜初 8:1)

기름 ㄹ티 도외어든(如油者)(救方 下38)

너희 손 도원 양 말고(你休做客)(老諺 上38)

너르면 곧 성신이 되오(過則聖)(麟小 8:3)

빈촌 이러하여도 굳하나 허물은 되지 아니호오리(隣語 1:2)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되다’는 ‘ㄷ외다>도외다>되다’를 거친 말인데, 이러한 과정에 맞게 이원주본에서는 ‘도외다’로, 일사본에서는 ‘되다’로 표기되었다.

(9) 도즈기(이22a) : 도적이(일37a)

쇠 한 도즈굴 모라샤(廢知黠賊)(龍歌 19)

도죽으로 하여곰 죽인대(使盜殺之)(小學 4:43)

盜賊이 能히 劫디 몬게 하며(榜 6:29)

즈조 도적을 만나(數遇賊)(小學 6:18)

도적 적 : 賊(漢清 7:59)

‘도죽’은 중세국어까지 쓰였고, 한자어 ‘도적’은 15세기 이후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正俗諺解」에서도 이에 맞게 이원주본에서는 '도죽'이, 일사본에서는 '도적'이 쓰였다.

(10) 머리홀디라(이14b) : 멀니흠이니(일24b)

다른 姓에 取호요던 ㅁ 머리호돌 ㅁ게 호며(取於異姓所似附遠)(內訓 1:76)(宣祖 內賜本)

이에 야속호며 거슴슴을 멀이홀디니라(斯遠鄙倍矣)(小學 3:6)

멀리홀 원 : 遠(註千 27)

멀니 저른 구롬을 ㅁ라오니(百行 20)

중세국어에서 '머리', '멀이'로 표기되던 것이 근대국어에서 '멀리', '멀니'로 음운 첨가되는 경향에 맞추어 「正俗諺解」에서도 이원주본에서 '머리'로, 일사본에서 '멀니'로 표기되었다.

(11) ㅁ느니(이4a) : 모히리니(일6a)

四方 諸侯 | ㅁ더니(諸侯四合)(龍歌 9)

ㅁ디 아니호여셔는 ㅁ디 아니호더라(不集不食)(小學 6:69)

모들 회 : 會(倭解 下35)

형제 대청에 모히여 종일토록 상디호야(五倫 4:27)

'會'의 뜻을 가진 말은 중세국어 이래 'ㅁ다'가 쓰였으나 위의 예 「五倫行實圖」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에는 '모히다'로 나타난다. 「正俗諺解」에서도 이원주본에서는 'ㅁ다'로 나타났지만 일사본에서는 '모히다'로 쓰여 18세기 근대국어의 표기 경향과 같다.

- (12) 므스거슬(이2a) : 무서슬(일3a)
므스 일를(이6b) : 무어슬(일10a)

므스거시 不足 ㅎ료(釋 6:24)

므스거스로 딛 가져 가료(着甚麼將的草去)(老諺 上29)

므스 이룰 잘 ㅎ노(何能)(三綱 孝11)

므스 일 ㅎ리오(做甚麼)(翻朴 上7)

ㅁㄹ치디 아니 ㅎ야셔 어디름이 聖人 아니오 므서시며(不敎而善非聖而何)(小學 5:27)

므서슬 싱각 ㅎ는다(要想甚麼)(老諺 下11)

또 ㅁ어슬 求 ㅎ여 얻디 못 ㅎ며(亦何求不得)(小學 5:99)

ㅁ어슬 ㅎ ㅎ리오(何恨乎)(五倫 2:25)

‘므스’는 관형사로 의존명사 ‘것’과 합성하여 대명사 ‘므스것’을 만들어 위의 예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였다. 그런데 이에 해당되는 말로 근대국어에서는 ‘므섯’, ‘므엇’이 주로 쓰였는데 「正俗諺解」 일사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 (13) 밍 ㅁ라(이21b) : 민 ㄸ라(일35b)

새로 스믈 여늬 字를 밍 ㅁ노니(訓諺)

世數를 조차 齣실을 밍 ㅁ랏다가(家禮 1:12)

무덤을 민 ㄸ라 주니라(爲營塚壙)(翻小 9:33)

네 민돌면 엇디 민돌려 ㅎ는다(你打時怎麼打)(朴諺 上15)

이 말은 ‘밍굴다>민돌다>만들다’의 과정을 거친 것인데, 「正俗諺解」이

원주본과 일사본에서 이를 잘 반영하여 각각 '땡굴다'와 '땡돌다'로 표기했다.

(14) 받 어우리(이23a) : 받 어올이(일38b)

이 말은 동사 '어올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원주본과는 달리 일사본에서는 형태소를 밝혀 적어 '어올이'로 표기했다. 이러한 표기는 근대국어에서 보여준 문법의식의 흐름과 일치한다.

(15) 엇메(이26b) : 엇디(일45a)

이제 엇메 羅喉羅를 앗기는다(釋 6:9)

더 피 敗散호물 엇메 쫓리 호노(往者散何卒)(杜重 1:4)

서르 불 주를 엇디 알리오(杜初 15:47)

엇디 붓그러오물 츄마(能忍恥與醜)(五倫 2:27)

네 前에 北京에 든넛노라 호며 엇지 모록는다(蒙老 4:7)

이 말은 '엇메>엇디>엇지>어찌'의 과정을 거쳤는데 「正俗諺解」도 이를 잘 반영하여 표기했다.

(16) 즈श्यक(이1b) : 즈श्यक(일2a)

즈श्यक(이8b) : 즈श्यक(일14a)

* 즈श्यक(이2a) : 즈श्यक(일3a)

子息 업스श्यक(月釋 1:2)

年少호 즈श्यक이 初行으로 가서(隣語 7:13)

즈श्यक 업고 손지 업스면 다 ㄴ미 거시 도의리니(무자무손진시타
인지물)(鰥朴 上7)

내 남진도 잇고 즈श्यक 이시니(我有夫有子)(新續 烈7:89)

이 말은 한자어 ‘子息’에서 온 것으로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 ‘즈श्यक’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즈श्यक’으로도 쓰였다. 그런데 「正俗諺解」이원주본에서는 ‘자श्यक’이 주로 쓰였고, 일사본에서는 ‘즈श्यक’만이 나타난다.

IV. 어형 소멸로 인한 어형 교체

이원주본에서 쓰였던 어형이 근대국어에서 사라져 일사본에서 다른 어형으로 대체되어 쓰인 경우이다.

(1) 거느리치고(이13a) : 건디며(일21b)

엇데 時節 거느리출 謀策이 업스리오마론(豈無濟時策)(杜初 3:58)
사롬이게 반드시 거느리칠 배 이시리라(於人必有所濟)(小學 5:58)

救호야 건디실 뿌니시니라(救濟而已)(法華 7:29)

만일 쓰디 못호야 건디셔 보야호로 나왓거든(如未淨打撈方出)(無冤 3:3)

‘거느리치다’는 중세국어에서 ‘救濟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였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다. 중세국어에서 ‘거느리다’는 ‘領’의 뜻과 더불어 ‘濟’의 뜻도 가지고 있었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濟’의 뜻은 상실했다. 반면에 중세국어 이래 ‘濟’의 의미로 활발히 쓰였던 ‘건

디다'가 근대국어에서는 이 의미를 도맡아 쓰인 것이다. 이에 맞추어 일사본에서도 어형 '건디다'가 '救濟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2) 성 계워(이26b) : 혈기에 붙이 온 배 되야(일44b)

그 後에사 외니 올흐니 이긔니 계우니 홀 이리 나니라(月釋 1:42)

이긔며 계우는 닥스미 업스며(無勝負心)(金剛 下151)

이긔유물 獸호옴고 계우므란 니르디 아니호더라(獸捷不云輸)(杜重 2:47)

'계우다'는 위의 용례처럼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였고, 고시조에도 나타나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이원주본에서는 쓰였던 '계우다'에 대해 일사본에서는 원문 '爲血氣所使'를 직역하여 위의 예문처럼 하였는 바, 이 당시에 '계우다'는 소멸된 어휘로 생각된다.

(3) 글월(이10a) : 글(일17a)

글워레(이12b) : 글에(일21a)

'글월'은 「龍飛御天歌」에서 '글발'(26장)로 쓰인 이후 '글월'을 거쳐 중세국어에서 폭넓게 여러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18세기부터는 어형 '글월'의 쓰임이 많이 줄어들고 '글, 문서, 편지' 등의 어휘가 많이 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⁵⁾ 「正俗諺解」에서도 이원주본에서는 '글월'로 표기되었던 것이 일사본에서는 '글'로 표기되어, 이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했다.

(4) 남진 겨집비(이4b) : 지아비와 지어미(일8a)

남진 겨집븐(이5b) : 지아비와 지어미눈(일8b)

5)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pp.227-231.

남진니며 겨집비며(이14b) : 지아비 지엄이와(일24a)

위의 용례는 한자 ‘夫婦’를 언해한 것인데 이원주본과 일사본에서 이들을 각각 다르게 지칭했다. ‘남진’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夫’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인 말인데 근대국어에서 점차 쓰임이 줄어들고 대신 단어 ‘지아비’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5) 엇디 납디(이25b) : 엇디 즐겁디(일43a)

위의 이원주본의 용례 ‘납디’는 한자 ‘樂’을 언해한 것인데 기본형이 ‘납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옛날 다른 문헌에서 이 말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 이 말이 ‘樂’의 의미로 쓰이다가 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6) 내종내(이4a) : 못춤내(일6a)

乃終내 달음 주리 업스시니다(釋 9:27)

내종내 좃씨 아니호고 슬허 여위여 병드러썩셔니(新續 孝31)

못춤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못흠 노미 하나라(訓諺)

하늘이 못춤내 말을 아니호시는소다(天卒不言)(五倫 2:43)

못춤내 해호를 니브니라(竟被害)(新續 孝8:2)

한자어 ‘乃終’에 접미사 ‘-내’가 붙어 형성된 ‘내종내’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많이 쓰였으나 결국 소멸되고, 중세국어 이래 활발히 쓰인 ‘못춤내’가 그 의미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正俗諺解」 이원주본과 일사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 (7) 형데라와 더하리 잇느니(이4a) : 형데에서 더하재 이시니(일5b)
전년 설우미라와(이23b) : 디난히 흥황에서(일39b)

븨비츠로 莊殿호미 日月라와 느리(釋 9:4)

ㄸ비치 히요미 누니라와 더으더니(顔色白勝雪)(杜重 1:5)

븨고미 日月에서 더으고(明愈日月)(蒙法 65)

그려괴 지체셔 가비얍고(南明 下25)

뉘 이에서 크리오(宣孟 13:26)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라와'는 중세국어와 「杜詩諺解」 중간본에서 많이 쓰였지만 그 후에는 소멸되자 일사본에서는 대신 중세국어부터 쓰여 온 조사 '에서'를 택하여 썼다.

- (8) 모디(이13b) : 반디시(일22a)

모로미(이5b)(이13b)(이16a) : 반디시(일8b)(일22a)(일27a)

살면 모디 죽고 어울면 모디 버으는 거시니(月釋 2:15)

모디 諸緣을 다 버리고(仍要盡捨諸緣)(蒙法 34)

모디 마를디어다(切莫)(野雲 48)

비흠 사르미 모로미 몬져 이러토흔 이를 업시하야(學者須先除去此等)(觀小 8:18)

모로미 슈 : 須(倭解 上26)

'모디'는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이다가 사라졌고, '모로미'는 근대국어에서도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모름지기'라는 단어로 사용된다. 「正俗諺解」이원주본에서는 '모디', '모로미'가 쓰였으나, 일사본에서는 모두

‘반드시’로 나타난다.

(9) 세간놀 배여(이17b) : 세스를 일허(일29b)

네 내 利益을 앓느니 내 네 나라홀 배요리라(月釋 7:46)
상늑 장괴 허디 마라 송스 글월 허디 마라 집 배야 뜨슴하며
(松江歌辭)

‘亡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 ‘배다’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쓰이다가 근대국어 중간에 소멸되었는데, 위의 용례와 같이 일사본에서는 단어가 ‘잃다’로 나타난다.

(10) 밧고로 빋서(飾)(이22a) : 깃출 꾸며버(일36b)

沐浴하고 香 ㅼ르코 ㅼ장 빋어(月釋 7:3)
名利를 사랑하야 모뎨 비스고(愛名利以榮身)(永嘉 上26)
비슬 반 : 扮(訓蒙 下20)

萬億 塔을 세오 七寶로 조히 꾸미거나(釋 13:51)
꾸미다(扮做)(譯解 下44)

‘扮飾’의 의미를 나타내던 단어 ‘빋다’는 중세국어에서 위의 용례처럼 쓰였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대신 「正俗諺解」 일사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꾸미다’가 ‘扮飾’의 의미를 도맡은 것으로 보인다.

(11) 성녕을(이21b) : 지조엿 일울(일35b)

슈질 치지켓 성녕 잘하고(好刺綉生活)(龜朴 上45)

성녕(工程)(同文 下17)

‘手工藝’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성녕’은 위의 「同文類解」에 나오는 예처럼 18세기에도 잘 쓰였다. 그러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소멸어가 된 말인데, 일사본에서는 ‘성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문을 직역하여 ‘지조엿 일’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12) 올흐며 외며(이8a) : 올흐며 그르며(일12b)

원 일례(이7b) : 글은 고딕(일12a)

醫물 맞나고도 원 藥 머겨 아니 주굼 저괴 곧 橫死호며(釋 9:36)

이러므로 써 외며 사벽흔 ㅁ오이(是以非辟之心)(小學 3:18)

원 성품(左性)(漢清 8:42)

ㅁ숨 뿌미 그르게 마를디니(圓 上二之二18)

올흔 도여든 나아가고 그른 도여든 물너나며(敬釋 1)

단어 ‘외다’는 ‘非, 誤’의 뜻으로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근대국어에서도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正俗諺解」에서도 위의 용례와 같이 이원주본에서는 ‘외다’로 쓰였으나, 일사본에서는 ‘그르다’로 나타났다. 근대국어 말기에 단어 ‘외다’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3) 입힐호모로(이13a) : 입뵤말을 인호야(일21b)

또 입힐흙 엷다 혼 브디니(月釋 7:6)

입힐흙호다(爭嘴)(同文 下28)

‘말다툼’의 의미를 가진 ‘입힐흙’이란 말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사라진 말인데, 이원주본에서 쓰였던 이 말이 일사본에서는 쓰이지 않고 다른 말로 나타내고 있다.

(14) 저허(이16a) : 두려히며(일26b)

獅子 | 위두하야 저호리 업슬씨(月釋 2:38)

상네 강포홀 노미 더러일가 저허(常恐有强暴之汚)(新續 烈13)

오직 떠러덜가 두려호노니(唯恐墜)(小學 5:25)

본집에서 기가하일가 두려하야 마리털을 버허(恐家必嫁已乃斷髮)

(五倫 3:21)

단어 '정다'는 중세국어에서 17세기 국어까지는 많이 쓰였으나 18세기에는 사라지고, 대신 '두려하다'가 그 의미를 맡아 쓰인 것으로 보인다.

(15) 저근덜(이26b) : 잠간 저기(일45a)

저근덜 몰흔 스시에(未須臾間)(法華 2:129)

저근덜 하야 지비 다 트니라(俄而廬盡燒)(新續 烈1:53)

부사 '저근덜'은 '暫間'의 뜻으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많이 쓰였던 것인데, 그 후 그 자리를 한자어 '잠간'(지금은 '잠깐')이 자리를 잡았다. 이원주본과 일사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6) 혼이니 전초로(이11b) : 혼인 싸인 고로(일19b)

舍利弗이 전초 업시 우셔늘(釋 6:35)

이런 전초로 父母 | 사랑하시는 바물(是故父母之所愛)(宣賜內訓 1:44)

니인인 전초로 반공신도 못하나(癸丑 66)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原因'의 뜻을 가지고 있던 '전초'는 17세기 초로 추정되는 「癸丑日記」에서도 쓰였으나 후에 소멸되었다. 이 말은 위의 예에서처럼 일사본에서도 쓰이지 않았다.

(17) 차흠다(이16a) : 슬프다(일26b)

차흠다 風俗의 사오나이 도익유미 이러하니(嗟乎風俗類弊如是)
(續小 10:33)

'차흠다'는 현용 국어사전에 실려 있으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일사본이 간행되던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흠다'보다 '슬프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였다고 생각된다.

(18) 하거니와(이4a) : 만커니와(일6a)

아수미 하도(이10a) : 가문권당이 비록 만하나(일16a)

그우일 하물(이23a) : 구실 만하물(일38b)

꽃 도쿄 여름 하느니(龍歌 2)

네 나히 한 듯하니(你敢年紀大)(老諺 上57)

단어 '하다'는 중세국어 이래 많이 쓰여 위의 예에서처럼 「老乞大諺解」(1745)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正俗諺解」이원주본에서 '하다'로 나왔던 모두가 일사본에서는 '만하다'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말에는 이 말이 소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 항것시(이15b) : 넘자히(일26a)

항거식계(이15b) : 남자의계(일26a)

항것(이15b) : 남자홀(일26a)

두 사랴미 眞實로 네 항것가(月釋 8:94)

종과 항것과는 남금과 신하의 분이 인느니(奴主有君臣之分)

(警民 7)(改刊本)

刹帝利는田地 남자히라 호는 마리니(釋 9:19)

남자를 사마(爲己主宰)(永嘉 上54)

사는 남자(買主)(譯解 上68)

‘항것’은 ‘주인’의 의미로 17세기 문헌인 「警民編」에서도 쓰였지만 「正俗諺解」 일사본에서는 모두 ‘남자’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20) 흥정와치라(이21b) : 당시이라(일35b)

마초아 흥정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잇더니(釋 6:15)

내 흥정바치 아니라도(我不是利家)(老諺 下24)

흥정아치(買賣人)(漢清 5:32)

一千貫으로 당시 나가더니(月釋 23:64)

즈르북 흔들고 도는 당시(搖貨郎)(譯解 上68)

이 말은 ‘흥정바지>흥정바치>흥정와치>흥정아치’의 변화과정을 겪었는데, 「正俗諺解」 일사본에서는 ‘당시’로 쓰이고 있다.

(21) 모르논 디오(이2b) : 아디 못호는 작이오(일3b)

모르논 디니(이2b) : 아디 못호는 일이니(일3b)

흔 큰 잃 因緣으로 世間에 나시는 디라(釋 13:49)
다 쓸 디 업슨 디라(南明 上2)

‘디’는 ‘ㄷ’에 주격조사 ‘ㅣ’나 서술격조사 ‘ㅣ라’가 붙어 이루어진 말인데 위의 예처럼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였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이 말이 덜 쓰이면서 대신 다른 의존명사이나 일반명사로 대체되어 쓰였다. 「正俗諺解」에서도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원주본에서 ‘디’로 나타났던 것이 일사본에서는 ‘작’과 ‘일’로 나타났다. 반면에, ‘즈연흔 도리라(이2b) : 즈연흔 디라(일3b)’처럼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 것도 있다.

(22) ㅎ다가(이16a) : 만일(일26b)

ㅎ다가 衆生이 父母 不孝ㅎ며(月釋 21:38)

ㅎ다가 디나가면(若過去了時)(老諺 上9)

뵈여 神ㅎ야 萬一 죽디 아니홀 거시면(谷神如不死)(杜初 6:28)

만일 약 : 若(倭解 上27)

‘ㅎ다가’는 중세국어는 물론 근대국어에서도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소멸어휘다. 이 말은 일사본에서도 쓰이지 않았다.

V. 의미가 변화하여 다른 어휘가 대체되어 쓰이는 것

이원주본에서 쓰였던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여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쓰인 경우이다.

- (1) 사오나이 하리도 겨시며(이25a) : 사오나이 하시리 이시며(일41b)
 아니 지스리도 겨시며(이25a) : 아닐이 이시며(일41b)
 도락리도 겨시며(이25a) : 두른이 이시며(일41b)

‘겨시다’는 중세국어에 존칭뿐만 아니라 평칭에도 쓰였으나, 나중에는 어형도 ‘계시다’로 바뀌고 의미도 존칭만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일사본에서 평칭으로 쓰일 만한 곳에서는 ‘이시다’를 쓴 것으로 보인다.

- (2) 제 겨집비(이5b) : 제 지어미(일9a)

‘겨집’은 중세국어에서 ‘女子’나 ‘妻’의 뜻으로 平語였으나, 지금은 어형이 ‘계집’이 되고 의미 가치도 하락하여 卑語로 쓰인다. 위에서 든 일사본의 예 ‘지어미’는 원문 ‘妻’의 언해인 바, 이러한 原義의 충실한 언해와 ‘겨집’이 가지고 있던 의미 가치 하락으로 ‘겨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어미’란 말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 (3) 갓본 일(이15b) : 슈고를(일26a)

즉자히 도로 니저 갓본 썬니니(釋 6:11)

모미 갓보돌 아노라(覺身勞)(杜初 8:58)

훈갓 제 갓브니(徒自疲)(南明 上39)

갓볼 로 : 勞(類合 下7)

갓부다 : 精神疲ろ。(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즉사릿 受苦를 아니 하거시니와(月釋 1:12)

슈고 견디지 못 하다(不耐勞)(漢清 8:28)

중세국어에서 ‘갓부다’는 ‘勞·疲’의 뜻이었으나, 이와 관련 있는 현대

국어의 '가쁘다'는 '힘에 겨워 어렵고 괴롭다.'의 뜻이다. 위의 예 이원주본에서 '꺾본 일'은 원문 '勞'를 언해한 것이므로 적합한 번역이나, 후에 '갓보다'가 '힘겹다'의 뜻으로 변함에 따라 일사본에서는 원문에 적합한 '슈고'란 어휘를 택하여 언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그 울흐며 외며 어딜며 사오나온 짜홀 아라(이8a) : 울흐며 그르며 어딜며 사오나옴이 잇는 고들 알옴이라(일12b)

중세국어에서 '짜'는 자립명사 '땅'(地)의 의미와 의존명사 '곳, 데, 바'의 의미를 보유한 다의어였다.⁶⁾ 위의 예 이원주본에서 쓰인 '짜'의 의미도 '地'의 뜻이 아니라, '곳'이나 '데, 바'의 의미다. 후에 단어 '짜'가 의존명사의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위의 일사본에서는 당시의 문맥에 맞는 단어 '곧'으로 언해했다.

- (5) 병호시거든(이2a) : 병환이 겨시거든(일3a)

'병환'은 어른에 대한 '병'의 경어이다. 위의 용례는 부모의 병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일사본에서는 그에 걸맞게 '병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언해했다.

- (6) 에엿비 너기며(이3b) : 근심호며(일5b)

憫然은 어엿비 너기실 씨라(訓諺)

어버이 어엿비 너겨 허호니(親憐而聽之)(五倫 1:66)

에엿비 너길 년 : 憐. 에엿비 너길 민 : 憫(類合 下13)

네 에엿비 너기라(你可憐見)(老諺 上44)

6) 上揭書, p.158.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어엿비' 또는 '에엿비'는 '懶, 懈'의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어엿비'는 '예쁘게'의 뜻으로 의미가 변화하여 쓰이고 있다. 위에서 예로 보인 「正俗諺解」 일사본에서 어형 '에엿비'를 피하고 '근심다'를 택하여 쓴 것은 단어 '에엿비'의 의미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7) 몫 근원놀 여위에코셔(이19a) : 몫 근원을 몰되고(일31b)

渴은 몫 여윌씨라(榜 9:71)

솔히 지도 여위도 아니흐니라(月釋 1:26)

단어 '여위다'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枯渴'과 '瘦瘠'의 의미로 쓰이던 말인데, 18세기 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枯渴'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았다.” 다만 「正俗諺解」 일사본에서 다음과 같이 '여위다'가 쓰였다.

따히 여외고 물은즉(土 燥)(正俗 31)

그러나, 이 말은 원문의 번역에 충실하다 보니 그렇게 나타났고, 어형 '여위다'가 가지고 있던 '枯渴'의 의미는 소실되었다는 것이 위의 일사본의 용례 '몰되고'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여위다'가 '瘦瘠'의 의미는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8) 그런 줄로(이2a) : 이러모로(일2b)

의존명사 '줄'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여러 서술어와 호응

하여 쓰였는데, 그 중 '까닭·因'의 뜻으로도 쓰였다. 위의 이원주본의 '줄'이 '까닭'의 뜻으로 쓰인 경우인데, 후에 의존명사 '줄'이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없게 되자 일사본에서는 '까닭'의 뜻이 있는 '이러므로'란 말을 썼다.

- (9) 심계를 일티 아니호 타시라(이21b) : 살 업을 일티 아니함을 말미암은 덕이라(일36a)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탓'이 '잘못된 까닭'의 뜻으로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위의 이원주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까닭'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그러나 후에 단어 '탓'이 '잘못된 까닭'의 뜻만을 나타내는데 쓰이게 되자 일사본에서는 위의 용례 '말미암은 덕'으로 언해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잘못된 까닭'을 나타낼 때는 일사본에서도 단어 '탓'을 썼다.

- 누를 허물 하리오(이2b) : 뉴 타시라 하리오(일3b)

- (10) 혜다(이4a) : 심각다(일6a)

- 혜다 아니 호여(이4a)(이17b) : 심각다 아니 호야(일6a)(일29b)

중세국어에서 '혜다'는 '算'과 '愼'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은 후에 어휘가 변천하여 '算'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형은 구개음화하여 '세다'가 되고, '愼'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형은 '혜아리다'가 되었다. 그래서 위의 일사본에서는 어형 '혜다'가 쓰이지 않고 '심각하다'가 쓰였다.

- (11) 햐 잘 하리런 홍정히이고(이8a) : 햐수롤 잘 호는 잘난 당스질홀 고더 도라 보내며(일13a)

'홍정'이 '장사'를 나타내는 뜻에서 '거래, 교섭' 등의 의미로 확대하여

쓰이자 일사본에서는 원문의 한자 '商'에 적합한 '당스'라는 단어를 썼다.

- (12) 그 어버일 스랑티(이10a) : 그 어버이를 싱각디(일16a)
그 은혜를 스랑하리니(이15b) : 그 은혜을 싱각하리니(일26a)
가마니셔 스랑커든(이26b) : 가만이 싱각혼디(일45a)

위의 예에서 이원주본의 단어 '스랑'은 각각 한자 '念', '懷', '思'를 언해한 것인데, 이는 '스랑'이 '思'와 '愛'의 뜻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 '스랑'으로 언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근대국어에서 단어 '스랑'이 '思'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愛'의 뜻으로만 쓰이게 되어, 일사본에서 원문의 한자를 모두 '싱각'으로 언해했다.

Ⅶ. 일사본에서 당시 주로 쓰는 어휘로 바뀜

- 내중애(이8b) : 무춤애(일13b)
숯고(이2a) : 알외고(일2b)
거숯떠도(이4a) : 어긔나(일6a)

위의 예는 각각 원문의 '卒', '告', '乖'를 언해한 것으로 일사본에서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춤애', '알외다', '어긔다'를 택하여 언해했다.

Ⅷ. 결론

지금까지 「正俗諺解」 이원주본(1518년)과 일사본(18세기말)의 비교 고

찰을 통하여 어휘 변천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사본에서 나타난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이원주본에서 고유어로 언해했던 많은 어휘가 일사본에서는 한자어로 교체되어 쓰였다. 예를 들어, '하늘과 짜'가 '乾坤'으로, '허물'이 '過失'로, '웃듬'이 '紀綱' 등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이원주본과 비교하여 일사본에서는 많은 어휘가 어형이 변화하여 쓰였거나 어휘가 소멸하여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 근대국어의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어형이 변한 것의 예는, '가률'이 '가률'로, '그우일'이 '구실'로, '너기다'가 '녀기다' 등으로 변화한 것이 있고, 어휘가 소멸된 것의 예는, '저느리치다', '남진', '라와' 등이 있다.

또한 상당수 어휘는 이원주본에서 쓰였던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여 원문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쓰였는데, 예를 들어, '겨시다'가 '이시다'로, '겨집'이 '지어미'로, '웃부다'가 '슈고' 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실례의 고찰을 통하여 「正俗諺解」가 16세기초와 18세기말의 어휘 현상이 잘 반영된 문헌이라고 생각된다.